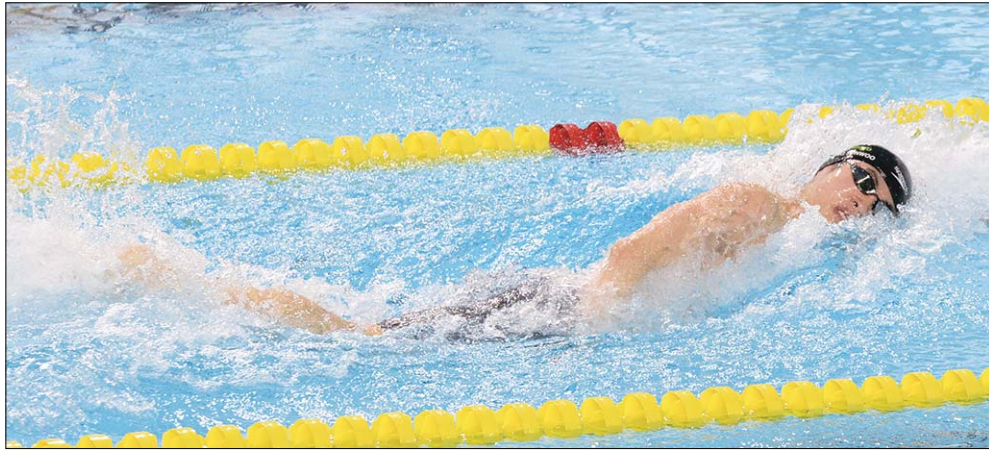


황선우, 자유형 200m 세계랭킹 1위

광주 전국수영선수권서
남자 200m 결승서 우승
1분44초61 터치패드 찍어
오늘 자유형 100m 출진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강원도청)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치른 실전에서 올 시즌 자유형 200m 세계랭킹 1위 기록을 작성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울산 남구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일반부 혼계영 400m 경기에서 역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강원도청)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치른 실전에서 올 시즌 자유형 200m 세계랭킹 1위 기록을 작성했다.

황선우는 13일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2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1분44초61로 터치패드를 찍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월 2023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겸해 열린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 자유형 200m에서 1분45초36을 기록했던 황선우는 이날 1초 가까이 빠른 기록을 냈다.

2023시즌 남자 자유형 200m 세계랭킹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중국의 관잔러가 지난달 초 중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1분44초65보다 0.04초 빨랐다.

지난해 6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한국기록이자 개인 최고 기록인 1분44초47에는 불과 0.14초 모자랐다.

남자 자유형 200m 세계기록은 파울 비더만(독일)이 작성한 1분42초00이다. 다만 이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전신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기 전에 써진 기록이다.

전신 수영복 착용이 금지된 2010년 1월 이래 최고기록은 다비드 포퍼처(투바리아)가 작성한 1분42초97이다. 자유형 100m, 200m 최강자로 군림하

고 있는 포퍼처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황선우는 관잔러의 기록을 넘어선 9월 한겨울 아시아인케입 금메달 기대를 키웠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자유형 200m 은메달을 수확했던 황선우는 세계랭킹 1위 기록을 내면서 다음달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에도 청신호를 켜다.

황선우는 이날 오전 벌어진 예선에서 1분49초30을 기록해 이호준(대구광역시청·1분48초52)에 이어 2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황선우는 전력을 다해 역영을 펼쳤다. 0.51초의 반응속도로 물에 뛰어든 황선우는 첫 50m 구간을 24초27로 통과해 선두로 나섰다. 100m 지점도 50초70의 기록으로 역시 가장 먼저 통과한 황선우는 다른 선수들과 격차를 벌리면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호준이 1분46초19로 2위에 올랐고, 양재훈(강원도청)이 1분48초40으로 3위에 자리했다.

황선우와 이호준은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나란히 자유형 200m에 나선다. 또 계영 800m에서도 힘을 합친다.

황선우는 경기를 마친 뒤 매니저인 트사인 올렛스포츠를 통해 "한국기록을 아쉽게 경신하지 못했지만, 이번 결과가 세계선수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레이스 후반 힘이 들었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잘 준비해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계선수권까지 한 달 가량 남았다.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려 나의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황선우는 오는 14일 자유형 100m에 출진한다. /뉴스1

황인범, 올림픽아코스 첫 시즌 만에 '최우수' 선정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27)이 그리스 프로축구리그의 올림피아코스에서 첫 시즌 만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그리스 리그 사무국은 13일(한국시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황인범이 올림피아코스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올림피아코스 구단 역시 구단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올해의 선수로 황인범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황인범은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30.11% 득표율을 기록해 세드릭 바캄부(19.02%)와 알렉산드로스 파스찰라키스(16.72%)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뉴스1

3년 반 만에 다시 태극마크

전북현대 문선민, 축구 국가대표팀에 재합류
부진한 전북에 희망... 교체 투입 기회 노려야



문선민

2019년 연말을 끝으로 축구 국가대표팀과 멀어졌던 공격수 문선민(전북현대)이 3년 반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권경원이 지난 수요일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경기 중 발목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해 이번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대체 선수로 수비수 정승현(울산현대), 측면 수비수 박규현(다나모 드레스덴)과 함께 공격수 문선민을 택했다.

이로써 문선민은 2019년 12월18일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3차전 일본전(1-0 승) 이후 약 4년6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 의견당했던 문선민은 클린스만호가 출범하면서 기회를 다시 열게 됐다. 문선민은 2018년 인천에서 월드컵 당시 14골 6도움, 2019년 전북에서 10골 10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이후 입대를 기점으로 2020년 5골 4도움, 2021년 3골 1도움, 지난해 1골 2도움으로 부진에 빠졌다.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대표팀으로부터도 멀어졌다. 문선민의 A매치 기록은 14경기 2골에서 멈춰 있었다.

대표팀과 인연이 끊어진 듯했던 문선민이 이번에 깜짝 발탁된 것은 올 시즌 K리그에서 보여준 활약 때문이다. 문선민은 올 시즌 14경기에 출전해 4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문선민은 전북이 연패 수렁에 빠졌을 당시 유일하게 활약하게 뛰면서 팀을 구해냈다.

지난해 김상식 당시 전북 감독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했던 문선민은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올 시즌 예의 기민한 움직임과 골 결정력을 되찾았다. 문선민은 지난 3월2일 광주FC전에서는 혼자 2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3년 6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기는 했지만 문선민이 오는 16일 페루전과 20일 엘살바도르전에서 출전 기회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쟁쟁한 주전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문선민에게 긴 출전 시간을 부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문선민이 후반 막바지에 교체 투입돼 팀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흐름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다시 대표팀에서 입지를 넓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뉴스1

홍삼축제 홍보·스포츠 음료 개발 협력 약속

진안군, 한체대 방문
협약 관계자 회의 가져



진안군은 13일 한국체육대학교를 방문해 업무 협약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진안군청 제공)

진안군은 13일 한국체육대학교를 방문해 업무 협약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3월 4일 한국체육대-진안군-진안군체육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 후 한국체육대의 문원재 신임 총장이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기존에 맺은 업무협약서의 이행 내용 점검과 신규 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통해 다시 한번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내용은 기존 협약 내용인 한국체육대의 진안군 전지훈련과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상생과 협력에 더해 오는 9월 22일~24일까지 진행되는 2023 진안홍삼축제 홍보와 한국체육대 개발 중인 스포츠 음료와 관련해 진안홍삼연구소 및 관련 전문가들을 활용 등이다.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진

길을 방문해주신 진안군 및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업무협약 체결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현재 홍삼을 활용해 개발중인 스포츠 음료에도 진안군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체육대와 협력해 2023 진안홍삼 축제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향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다짐들이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약 이행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K리그 울스타,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대결

내달 27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친선 경기
내달 30일 트레블 맨시타와 AT마드리드



쿠팡플레이 시리즈 두 경기의 대진과 일정이 발표됐다. (사진=쿠팡플레이 제공)

K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대결을 벌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다음달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대표급 선수들로 구성된 팀K리그와 2022~2023시즌 스페인 라리가 3위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쿠팡플레이 시리즈 친선 경기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팀K리그 선수 구성과 선발 방식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팀 K리그는 다음달 중 팬 투표와 감독 선발을 거

쳐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팀K리그가 쿠팡플레이 시리즈로 유

럽 구단과 경기를 펼치는 것은 지난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홉스퍼와의 경기에 이어 올해가 2년째다.

연맹은 "이번 친선경기는 K리그 디지털 독점 중계방송사인 쿠팡플레이와의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2020년부터 중계방송과 재정건전성 등 다방면에서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프리메라리가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밖에 다음달 30일 오후 8시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유럽 축구 트레블(3관왕)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간 경기가 펼쳐진다. /뉴스1

2023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공간이룸
개관 5주년 기념 콘서트

신박듀오

Recital

Maurice Ravel
Gabriel Fauré
C. Saint-Saëns
Georges Bizet

2023. 6. 24(토)
5:00pm

문화공간이룸
ART SPACE

주최·주관 | 문화공간이룸
후원 | 한국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전주특별시장, 문화재단, 기획 | 이윤정, 기획 | 전지우, 후원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룸' 1:1 문의 063)223-5323